

고등학생의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와의 관련 연구

곽경숙[†] · 김정희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학산정보고등학교

A Study on the Relation to Life Style and Housing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young-Sook Kwark[†] · Jeong-Hee Kim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Haksan Information-industry High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housing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is is the investigation of which 1015 high school students live in Chonbuk province. In this statistical analysis, SPSS program was utilized to calculate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lso, these materials were verifi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ife style and hous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housing characteristic variables. The entire life style has been appeared high type of a along with PC. Most of students has been appeared high in health and security of housing. Also, correlation of life style and housing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ly. On the basic of these results, it can b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righteous understanding about life style and housing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for advisable guidance of housing education. It needed to continue diversified researches considering spread of life style 'with PC' and enough awareness of health and security in housing satisfaction.

Key words : housing education, life style, housing satisfaction

* 본 연구는 2002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시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344-2 Shinyong-dong, Iksan, Chunbuk, 570-749, Korea
Tel : 063-850-6587, Fax : 063-850-6585, H.P : 017-656-0598
E-mail : kskwak@wonkwang.ac.kr

I. 서 론

주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일차적 환경이며 인간 삶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이다. Carol (1980)은 주거는 현재 및 미래의 개인적 가치, 태도, 열망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比浦 化掘る, 上林博雄(1967)은 주거에 대한 관념은 인생관과 생활관의 일부이며 주거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긴 시간동안 계속되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생활양식은 생활의 구조적 측면인 생활의식, 생활행동, 태도 등의 복합체로서 주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객관적 의미를 갖는 생활의 표현양식이다(이은희, 1986). 생활양식은 집단 구성원들이 동조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므로 주생활을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고등학생이 속한 청소년기는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그들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이나 또래집단은 물론 다양한 대중매체의 노출을 통한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자기 정체감과 생활양식을 형성해 간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생활양식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학습되고 형성되어진 가치체계와 개성으로서 다른 집단과 차별화되는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자 할 때는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생각과 의식, 주거에 대한 만족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Gallogy (1974)는 주거선택 과정을 하나의 조직적 의사결정과정으로 간주하여 가족의 사회 배경적 요인이 예상지표로서 작용하고 여기에 개인의 동기와 가치관, 준거집단세력 및 문화인류학적 배경 등이 작용하여 이것의 산출물로서 주거가 선택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주거만족이라는 평가작용에 의해 피드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주거만족은 평가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평가의 결과가 피드백되어 주생활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각각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따로 분리하여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연구 대상도 주부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고등학교 시기의 주거관심도를 따로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주거 문화의 중심이 될 고등학생의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서로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거특성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또한 이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봄으로써 고등학생의 주생활을 이해하고, 나아가 학교나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주생활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따로 연구하기보다는 청소년기에 속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급격히 이루는 시기인 청소년기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 중 주거환경에 의해 행동이나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청소년은 주거환경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관계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1. 생활양식

생활양식(life style)은 Max Weber(1968)의 'Lebenfubrug',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통합원리를 의미하는 'Lebensanshaug'에서 유래하였다 (Duncan, 1969). Weber 이후 생활양식의 개념은 특정 집단과 계층이 공유하는 집합적인 의미로, Alder, Allport와 Coleman 등은 개인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였다(김숙향, 양남희, 1993; 이차옥, 1983).

생활양식의 개념은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부계층의 특징적인 생활양식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는 포함되어 있다

(김동기, 1993; 이은경, 박은순, 1998). 즉, 생활양식은 다양한 생활영역에 나타나며, 삶의 신조 또는 가치관을 포함한 하나의 집단현상으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 인종, 종교, 거주지역 등에 따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생활의식, 생활구조, 생활행동의 패턴화된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생활양식 중 주생활양식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목화(1991)는 가구사용, 공간사용, 난방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주거생활 조건에 따라 주생활양식을 재래식 기본생활 유형, 재래식 가족중심생활 유형, 절충식 가족중심생활 유형, 현대식 기본생활 유형, 현대식 사교·여가생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박영순 등(1994)은 주생활양식을 정리정돈형, 장식추구형, 자기표현형, 실용추구형, 유행추구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조현경(1994)은 주생활양식을 진보적 개인주의, 개성적 활동형, 생활충실표현형, 사회성 중시형, 소극적 합리형, 보수적 안정형, 전통적 관습형 등으로 구분하여 주생활양식에 따른 실내 환경 선호특성을 조사하였다. 심미영과 고경필(1996)은 주생활양식을 장식추구형, 자기표현형, 내부 기능성형, 실용성형, 과시성형으로 분류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주생활양식을 분석하였고, 또한 주생활양식이 주택구매 의사결정시 평가기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허영숙과 조성희(1997)는 주생활양식을 편리추구형, 개성중시형, 보수관행형, 전통격식형, 개인생활중시형, 현대합리형, 전통가족단란형, 현대 가족단란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김미희와 문희정(1998)의 연구와 김미희와 이유미(1998)의 연구에서는 주생활양식을 현대적 도시생활형, 자연·이웃환경중시형, 과시적 감성추구형, 소극적 개인생활형 및 전통적 관습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기 생활양식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근원(1993)은 문자세대인 기성세대에 비해 영상세대인 이 시기는 감성 중심적, 좋고 삶음이 분명, 감각적 판단, 당장의 선호가 기준, 집단과 일치지향, 자기표현 중시, 스스로 가치창조, 자기충실, 해방된 감정, 문화 생산소비에 참여, 사용가치의 중시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김은경(1995)은 신세대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개성화의 Personal, 즐거움의 Amusement, 자연에 대한 욕구 Natural, 나이나 성의 구분을 거부하는 Trends Border, 하이테크·하이터치의 Service 등의 P·A·N·T·S로 요약하고 있다. 이은경과 박은순(1998)은 신세대 생활양식을 자기중심적 감성문화, 발달된 영상매체와 통신문화, 국제적 개방문화로 분류하였다. 조명은과 윤복자(2000)는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과시·유행추구형, 가족중심형, 자기개발중심형, 편의추구형, PC와 함께형, 실리형, 운동·취미중심형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의 주생활양식에 대한 윤복자, 김혜정(1991)의 연구에서는 주생활양식을 주생활과 관련된 태도, 의견 관심 및 난방방식, 가구 및 생활기기의 소유 여부와 사용 빈도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양식이 변화하듯이 생활양식을 정의하거나 분류방법은 다양하다.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생활양식을 분류하는 것 또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발달단계의 특징 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 중 조명은과 윤복자(2000)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과시·유행추구형, 가족중심형, 자기개발중심형, 편의추구형, PC와 함께형, 실리형, 운동·취미중심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2. 주거만족도

만족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 다. Burr과 Hill(1979)은 만족을 갖는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의 정도라 하였다. 또한 주관적으로 경험한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과 같은 현상이라고도 하였다.

Campbel, Converse, Rodgers(1976)는 만족수준이란 성취감부터 박탈감까지 열망(aspiration)과 성취(achievement) 사이의 인식된 차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주거만족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표현이기도 하며 또한 생활만족이나 생활의 질과 같은 더 큰 개념형성에 유용한 예측변인이다. 주거만족의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선행연구(Brink & Johnson, 1978; 김희재, 1991; 주영순, 1996)에서 제시한 주거만족은 주거욕구충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반응이었다. 또한

특별한 면에 대한 부분적 분석이 아닌 전체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개인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주거만족도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Fried와 Gleicher(1961)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거주개념과 행태 가운데에서 거주자의 만족도가 배관이나 구조특성보다는 주거의 질을 평가하는데 더욱 적합한 기준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만족도를 주요개념으로 하여 기초적인 환경형태의 이론을 펴나가기 시작하였다. 주거만족은 살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거만족은 생활만족이나 생활의 질과 같은 더 큰 개념의 유용한 예측변인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만족과 생활의 질, 그리고 행복감이 주거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물리적인 특성은 거주자들의 문화적, 개인적 인자를 통해 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만족도는 단순히 물리적 특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형태, 심리요소 및 기능적, 사회경제적인 환경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이주택, 1994).

주거만족을 욕구가 충족되거나 기대-성취 수준이 높고, 인간과 주거사이의 심리적, 행동적 일치를 통해 경험될 수 있는 복지의 감정이라 정의한 차성란(1985)의 연구에 의하면, 주거만족은 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주거만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성취가 클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만족이 경험될 것이지만 주거만족의 인식은 역동적 과정이므로 정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거만족의 측정은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경험으로서 보조적인 지침과 통찰력만을 제시할 뿐이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주거의식에 관한 유성희(1982)의 조사연구에서는 개인공간 프라이버시와 개인 공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주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만족도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주거만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서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강조하였다. Bindel

(1982)은 청소년기의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청소년에 있어서 개인공간은 그들의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장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주거환경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주거환경에서는 전전한 인간의 성장과 발전 및 자아의 실현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조경은(1984)은 주거내 프라이버시 요구도와 충족도 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주거만족이 낮아지므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주택내부에 있어서 방의 배분, 가구배치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순경(198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프라이버시 태도, 개인공간 만족도, 주거만족도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프라이버시 요구도가 긍정적일수록 개인공간의 만족과 주거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거만족에 관한 강송희(1990)의 연구에 따르면, 주거변인에서 아파트에 거주할 때, 자가일 경우, 근린 환경 변인에서는 거주자가 주거지역일 때 근린 환경 만족도가 높다고 보아 주택 환경 만족도와 근린 환경 만족도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최현주(1995)는 청소년의 주거만족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주거공간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단순히 공간을 분할하는 주거공간 계획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주거 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거주인의 주거욕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청소년기의 주거욕구의 충족 정도를 주택에 대한 기대감, 열망, 경험 등에 비추어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주거상태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뿐 아니라, 형태를 예측하는 예측인자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 중 주영순(1996)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도구 내용은 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주거특성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생활양식은 조명은과 윤복자(2000)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혼사회구조적인 맥락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과시·유행추구형, 가족중심형, 자기개발중심형, 편의추구형, PC와 함께형, 실리형, 운동·취미중심형으로 분류하였다. 주거만족도는 주영순(1996)의 분류방법을 참고로 하여 내부구조 및 시설, 입지성 및 쾌적성, 교육 및 후생시설, 사회성, 사생활 보장, 심미성 및 개성, 건강 및 안정성으로 분류하였다.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서 '아주 그렇다'를 5점으로 '아주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한 결과, 생활양식은 $\alpha = .71$, 주거만족도는 $\alpha = .68$ 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성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월수입, 가족수, 가족형태를, 주거특성 변인으로는 현재 거주지역, 거주기간, 주택유형, 소유형태, 방의 기거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2. 표집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지역에서 각각 남·녀 고등학교 1개교씩의 2학년 3~4학급을 무작위로 표집한 학생 총 1015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1200부를 배부하여 1105부(회수율 92.1%)를 회수였으며, 이 중 기입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1015(84.6%)를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PC+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거특성 변인에 따른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등을 실시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517명(50.9%), 여학생 498명(49.1%)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487명(48.0%), 전문대졸 이상이 365명(36.0%), 중졸이하가 163명(16.1%) 순으로 고졸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 학력도 고졸이 553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 전문대졸 이상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 및 서비스직이 259명(25.5%), 사무직 239명(23.5%), 농업 165명(16.3%), 전문직 및 관리직 132명(13.0%), 생산직 97명(9.6%), 무직 14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전업주부가 465명(45.8%)으로 취업주부 425명(41.9%) 보다 약간 많았다. 가족의 월수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430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이 390명(38.4%), 100만원 미만도 120명(11.8%)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4명이 397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하인 가족도 358명(35.3%), 5명 이상인 가족은 260명(25.6%)이나 되었다. 가족형태는 대부분 핵가족(827명 81.5%)이었으며, 확대가족도 161명(15.9%)이나 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변인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648명(63.8%)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많았다. 거주기간은 6년 미만이 413명(40.7%), 13년 이상이 323명(31.8%), 7년에서 12년이 279명(27.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독립주택(412명, 40.6%)보다는 아파트 등 집합주택(603명, 59.4%)에 거주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소유형태에서는 자가(806명 79.4%)의 경우가 임대(209명, 20.6%)보다 높았다. 방의 기거 상황은 대부분 혼자 쓰고 있었으며(727명, 71.6%) 둘 이상 같이 쓰고 있는 학생이 288명

(28.4%)이나 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 분		n	%
성별	여	498	49.1
	남	517	50.9
부학력	중졸이하	163	16.1
	고졸	487	48.0
	대학이상	365	36.0
모학력	중졸이하	257	25.3
	고졸	553	54.5
	대학이상	124	12.2
부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	132	13.0
	사무직	239	23.5
	생산직	97	9.6
	판매직 및 서비스직	259	25.5
	농업	165	16.3
모직업	무직	14	1.4
	취업주부	425	41.9
월수입	전업주부	465	45.8
	100만원 미만	120	11.8
	100만원 ~ 200만원 미만	430	42.4
가족수	200만원 이상	390	38.4
	3명 이하	358	35.3
	4명	397	39.1
가족형태	5명 이상	260	25.6
	핵가족	827	81.5
	확대가족	161	15.9
	계	1015	100.0

*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시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분포

구 分		n	%
거주지역	농촌	204	20.1
	도시	648	63.8
거주기간	6년 미만	413	40.7
	7년 ~ 12년	279	27.5
	13년 이상	323	31.8
주택유형	독립주택	412	40.6
	집합주택	603	59.4
소유형태	자가 주택	806	79.4
	임대주택	209	20.6
방의 기거 상황	혼자 쓴다	727	71.6
	둘 이상 같이 쓴다	288	28.4
계		1015	100.0

*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시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3. 고등학생의 생활양식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

고등학생의 생활양식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과시·유행추구, 가족중심, 자기개발 중심의 생활양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운동·취미 중심형 생활양식이 높게 나타나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생활양식에서 전형적인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과시·유행 추구형, 자기개발 중심형, 실리형 생활양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p<.001$,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과시·유행추구형 생활양식 ($p<.001$)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자기개발중심형과 운동·취미 중심형 생활양식 ($p<.01$, $p<.001$)에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 및 관리직의 직업을 가진 경우가 과시·유행추구($p<.001$) 및 자기개발 중심형 생활양식을($p<.01$), 판매직 및 서비스직 직업을 가진 경우는 실리형($p<.001$), 생산직의 직업을 가진 경우는 운동·취미중심형($p<.01$)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차이에서는 가족중심형과 PC와 함께하는 생활양식형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수입이 높을수록 과시·유행 추구형($p<.001$), 자기개발 중심형($p<.01$), 실리형($p<.01$), 운동·취미 중심형($p<.01$)에서 높게 나타났고,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가정은 편의추구형 생활양식($p<.05$)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 가족수와 가족형태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는 없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임정빈 등 (1990)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생활양식이 차이를 보여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생활양식을, 학력이 낮을수록 실용적 안정형과 소극적 비합리형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학력이 낮은 집단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보이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고 적극적이며 실험적인 특성을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양식

M(SD)

구분		과시·유행 추구	가족중심	자기개발 중심	편의추구	PC와 함께	실리	운동·취미 중심
성별	여(n=489)	3.33(.60)	3.89(.58)	3.81(.50)	3.52(.57)	3.76(.76)	3.15(.53)	3.02(.68)
	남(n=517)	2.91(.63)	3.64(.62)	3.56(.53)	3.51(.58)	3.87(.79)	3.13(.55)	3.32(.85)
	t	11.01***	6.63***	7.91***	.13	2.38	.60	6.18***
부학력	중졸이하(n=163)	2.96(.67) ^b	3.74(.61)	3.61(.55) ^b	3.52(.52)	3.78(.78)	3.10(.57) ^b	3.07(.83)
	고졸(n=487)	3.11(.65) ^a	3.75(.61)	3.67(.53) ^{ab}	3.55(.58)	3.81(.77)	3.12(.54) ^{ab}	3.18(.79)
	대졸이상(n=365)	3.19(.63) ^a	3.78(.62)	3.73(.51) ^a	3.47(.58)	3.84(.78)	3.20(.53) ^a	3.22(.76)
	F	6.97***	.27	3.23	2.09	.36	3.03	2.01
모학력	중졸이하(n=257)	2.98(.63) ^b	3.70(.61)	3.59(.55) ^b	3.54(.54)	3.73(.79)	3.08(.54)	3.02(.81) ^b
	고졸(n=553)	3.19(.66) ^a	3.80(.61)	3.72(.51) ^a	3.53(.57)	3.87(.76)	3.15(.54)	3.24(.78) ^a
	대졸이상(n=124)	3.16(.62) ^a	3.77(.63)	3.74(.49) ^a	3.45(.59)	3.77(.71)	3.20(.52)	3.28(.77) ^a
	F	9.56***	2.23	6.19***	1.22	3.62	2.59	7.58***
부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n=132)	3.25(.62) ^a	3.76(.64)	3.77(.53) ^a	3.48(.57)	3.84(.70)	3.21(.44) ^a	3.22(.86) ^a
	사무직(n=239)	3.19(.65) ^a	3.79(.59)	3.71(.53) ^{ab}	3.45(.58)	3.82(.75)	3.12(.55) ^{ab}	3.22(.74) ^a
	생산직(n=97)	2.98(.62) ^b	3.71(.59)	3.62(.51) ^{bc}	3.49(.49)	3.81(.72)	3.05(.49) ^b	3.26(.90) ^a
	판매 및 서비스직 (n=259)	3.13(.67) ^a	3.77(.62)	3.70(.48) ^{ab}	3.57(.57)	3.83(.78)	3.23(.57) ^a	3.24(.76) ^a
	농업(n=165)	2.94(.60) ^b	3.71(.60)	3.55(.56) ^c	3.54(.58)	3.78(.83)	3.05(.50) ^b	2.98(.76) ^b
	F	6.33***	.65	4.32**	1.62	.13	4.71***	3.61**
모직업	취업주부(n=425)	3.13(.63)	3.74(.60)	3.68(.54)	3.51(.56)	3.85(.80)	3.15(.53)	3.19(.77)
	전업주부(n=465)	3.12(.66)	3.79(.60)	3.67(.52)	3.51(.56)	3.81(.74)	3.13(.54)	3.19(.81)
	t	.23	1.37	.26	.14	.73	.66	.15
월수입	100만원 미만 (n=120)	2.92(.61) ^c	3.69(.67)	3.60(.56) ^b	3.60(.56) ^a	3.68(.84)	3.01(.53) ^b	3.03(.75) ^b
	100만원 ~ 200만원 미만(n=430)	3.07(.63) ^b	3.73(.60)	3.65(.52) ^b	3.54(.55) ^{ab}	3.82(.75)	3.14(.58) ^a	3.14(.79) ^{ab}
	200만원 이상 (n=390)	3.21(.66) ^a	3.81(.61)	3.75(.54) ^a	3.46(.60) ^b	3.86(.77)	3.20(.51) ^a	3.26(.80) ^a
	F	10.57***	2.28	5.13**	3.36	2.45	5.32**	4.63**
가족수	3명이하(n=358)	3.15(.66)	3.74(.65)	3.66(.55)	3.48(.59)	3.82(.77)	3.14(.55)	3.13(.81)
	4명(n=397)	3.07(.66)	3.74(.60)	3.71(.52)	3.53(.54)	3.83(.75)	3.16(.56)	3.25(.76)
	5명이상(n=260)	3.13(.60)	3.82(.57)	3.67(.52)	3.54(.58)	3.79(.82)	3.12(.50)	3.12(.80)
	F	1.57	1.83	.83	.97	.20	.35	2.74
가족 형태	핵 가족(n=827)	3.12(.66)	3.76(.61)	3.69(.52)	3.51(.57)	3.84(.77)	3.15(.55)	3.16(.79)
	확대 가족(n=161)	3.07(.59)	3.77(.64)	3.64(.58)	3.50(.58)	3.77(.77)	3.13(.50)	3.23(.74)
	t	.86	.13	.92	.28	1.04	.49	1.08

*p<.05 **p<.01 ***p<.001 문자

※ a, b, c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Duncan의 다중법위검증(p<.05) 결과, 평균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 아버지의 직업이 무직인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 제외시켰음.

갖는 현대적 생활양식에서 볼 때 주부나 고등학생 모두 같은 결과를 보인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생활양식은 정보화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 주거특성 변인에 따른 생활양식

구분		과시·유행 추구	가족 중심	자기개발 중심	편의 추구	PC와 함께	실리	M(SD)
거주 지역	농촌(n=204)	3.09(.60)	3.77(.60)	3.60(.54)	3.54(.54)	3.75(.81)	3.07(.51)	3.13(.76)
	도시(n=648)	3.13(.65)	3.77(.61)	3.72(.51)	3.50(.59)	3.85(.75)	3.17(.54)	3.22(.78)
	t	.92	.16	2.94**	.88	1.67	2.20*	1.41
거주 기간	6년 이하(n=413)	3.16(.66)	3.77(.62)	3.72(.53)	3.56(.58)	3.87(.75)	3.19(.58)	3.19(.82)
	7년~12년(n=279)	3.10(.65)	3.77(.60)	3.68(.53)	3.48(.56)	3.77(.78)	3.13(.52)	3.16(.79)
	13년 이상(n=323)	3.07(.63)	3.73(.62)	3.64(.53)	3.49(.57)	3.79(.80)	3.10(.50)	3.16(.74)
	F	1.70	.50	1.70	1.99	1.73	2.63	.24
주택 유형	독립주택(n=412)	3.06(.64)	3.75(.62)	3.63(.55)	3.51(.56)	3.79(.79)	3.11(.51)	3.18(.81)
	집합주택(n=603)	3.15(.66)	3.77(.60)	3.72(.51)	3.52(.58)	3.84(.77)	3.16(.56)	3.17(.77)
	t	2.05*	.64	2.67**	0.77	.99	1.48	.02
소유 형태	자가주택(n=806)	3.13(.64)	3.77(.60)	3.69(.53)	3.49(.57)	3.80(.78)	3.14(.53)	3.18(.80)
	임대주택(n=209)	3.07(.68)	3.71(.64)	3.64(.54)	3.63(.56)	3.88(.76)	3.14(.58)	3.16(.73)
	t	1.19	1.27	1.25	3.15**	1.21	.00	.33
방의 기거 상황	혼자暮ら다(n=727)	3.14(.66)	3.77(.61)	3.68(.54)	3.50(.59)	3.81(.78)	3.15(.56)	3.21(.78)
	둘 이상 함께暮ら다(n=288)	3.05(.62)	3.73(.62)	3.69(.50)	3.54(.53)	3.83(.76)	3.12(.50)	3.09(.80)
	t	1.92	1.08	.38	.90	.38	.82	2.26*

*p<.05 **p<.01

* 문자 a, b, c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결과, 평균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2) 주거특성에 따른 생활양식

주거특성 변인에 따른 생활양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거주지역이 농촌보다는 도시일 경우 자기개발 중심형($p<.01$)과 실리형($p<.05$) 생활양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기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독립주택보다는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과시·유행추구형 생활양식($p<.05$)과 자기개발 중심형 생활양식($p<.01$)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주거의 소유형태에서는 자가주택보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편의추구형 생활양식에 높게 나타났다($p<.01$).

방의 기거 상황에서는 혼자서 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운동·취미 중심형 생활양식이 높게 나타나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5. 고등학생의 주거만족도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고등학생의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주거의 내부구조 및 시설, 입지성 및 흐적성, 교육 및 후생시설, 사생활 보장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중졸과 고졸보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주거의 교육 및 후생시설($p<.001$), 내부구조 및 시설($p<.01$), 심미성 및 개성($p<.05$)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도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 중 내부구조 및 시설($p<.001$), 교육 및 후생시설과 사생활 보장($p<.01$), 사생활 보장($p<.01$), 건강 및 안전성($p<.01$), 입지성 및 흐적성($p<.05$)에 높게 나타났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주거만족도

M(SD)

구분		내부구조 및 시설	입지성 및 휴식성	교육 및 후생시설	사회성	사생활 보장	심미성 및 개성	건강 및 안전성
성별	여(n=489)	2.98(.69)	3.02(.55)	2.65(.68)	2.85(.64)	3.18(.70)	2.83(.74)	3.23(.61)
	남(n=517)	3.11(.73)	3.13(.60)	2.74(.74)	2.84(.69)	3.26(.75)	2.85(.75)	3.31(.72)
	t	2.86**	3.05**	2.03*	.16	2.11*	.48	1.85
부학력	중졸이하(n=163)	2.97(.76) ^b	3.02(.54)	2.48(.64) ^b	2.86(.65)	3.21(.74)	2.75(.69) ^b	3.18(.62)
	고졸(n=487)	3.00(.70) ^b	3.07(.58)	2.72(.71) ^a	2.84(.66)	3.20(.74)	2.80(.72) ^b	3.27(.67)
	대졸이상(n=365)	3.15(.70) ^a	3.11(.60)	2.75(.72) ^a	2.84(.69)	3.27(.71)	2.91(.80) ^a	3.30(.68)
	F	5.78**	1.43	8.77***	.07	1.21	3.43*	2.01
모학력	중졸이하(n=257)	2.93(.69) ^c	3.02(.53) ^b	2.57(.68) ^b	2.87(.65)	3.14(.70) ^b	2.79(.70)	3.18(.63) ^b
	고졸(n=553)	3.07(.71) ^b	3.08(.60) ^b	2.74(.72) ^a	2.88(.69)	3.24(.74) ^b	2.84(.75)	3.31(.68) ^a
	대졸이상(n=124)	3.28(.77) ^a	3.19(.62) ^a	2.77(.72) ^a	2.77(.65)	3.39(.78) ^a	2.91(.84)	3.36(.73) ^a
	F	10.73***	3.52**	6.53**	1.31	4.89**	1.16	4.26**
부직업	전문직 및 관리직(n=132)	3.20(.78)	3.14(.69) ^a	2.79(.79) ^a	2.82(.78)	3.23(.80)	2.95(.85)	3.28(.75) ^a
	사무직(n=239)	3.05(.70)	3.11(.55) ^a	2.79(.70) ^a	2.89(.65)	3.25(.69)	2.88(.78)	3.37(.65) ^a
	생산직(n=97)	2.97(.69)	3.08(.58) ^a	2.83(.78) ^a	2.87(.69)	3.24(.74)	2.72(.66)	3.21(.72) ^{ab}
	판매 및 서비스직(n=259)	3.05(.71)	3.12(.58) ^a	2.70(.69) ^a	2.87(.66)	3.25(.75)	2.84(.75)	3.32(.66) ^a
	농업(n=165)	3.00(.70)	2.95(.51) ^b	2.41(.57) ^b	2.78(.57)	3.17(.73)	2.77(.65)	3.09(.57) ^b
모직업	F	1.88	2.81*	9.41***	.75	.36	1.84	4.62**
	취업주부(n=425)	3.02(.74)	3.05(.58)	2.63(.69)	2.82(.65)	3.19(.74)	2.82(.76)	3.23(.65)
	전업주부(n=465)	3.09(.71)	3.11(.58)	2.77(.73)	2.90(.67)	3.27(.73)	2.85(.74)	3.34(.66)
	t	1.28	1.58	2.91**	1.72	.1.69	.68	2.51
월수입	100만원 미만(n=120)	2.78(.75) ^c	2.88(.62) ^c	2.46(.72) ^c	2.61(.69) ^b	2.98(.76) ^c	2.63(.67) ^b	3.03(.71) ^c
	100만원~200만원 미만(n=430)	2.97(.68) ^b	3.02(.55) ^b	2.65(.67) ^b	2.83(.62) ^a	3.14(.71) ^b	2.75(.72) ^b	3.17(.60) ^b
	201만원 이상(n=390)	3.24(.72) ^a	3.22(.58) ^a	2.83(.75) ^a	2.95(.70) ^a	3.41(.73) ^a	3.01(.78) ^a	3.47(.68) ^a
	F	26.30***	21.44***	14.54***	12.39***	23.18***	17.61***	32.32***
가족수	3명이하(n=358)	3.09(.74)	3.03(.62)	2.69(.75)	2.83(.71)	3.28(.72)	2.84(.79)	3.28(.73)
	4명(n=397)	3.06(.70)	3.11(.56)	2.73(.68)	2.86(.66)	3.20(.74)	2.83(.71)	3.25(.66)
	5명이상(n=260)	2.98(.69)	3.07(.56)	2.64(.69)	2.85(.62)	3.21(.72)	2.84(.74)	3.27(.60)
	F	1.98	1.86	1.06	.135	1.39	.04	.14
가족 형태	핵가족(n=827)	3.06(.73)	3.06(.60)	2.71(.72)	2.83(.67)	3.23(.74)	2.82(.76)	3.28(.68)
	확대가족(n=161)	2.99(.66)	3.14(.51)	2.62(.66)	2.94(.65)	3.20(.68)	2.91(.70)	3.23(.62)
	t	1.10	1.51	1.48	1.93	.49	1.39	.74

*p<.05 **p<.01 ***p<.001

※ 문자 a, b, c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결과, 평균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 아버지의 직업이 무직인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 제외시켰음.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 및 관리직의 직업을 가진 경우는 주거의 입지성 및 휴식성(p<.05), 생산직의 직업을 가진 경우는 교육 및 후생시설과 사무직일 경우 건강 및 안전성(p<.001)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주거만족도 중 교육 및 후생시설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차이에서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가족수나 가족형태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볼 때 고등학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일 경우, 가족원은 4명 이하인 경우 주거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현주(1995)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성 및 사생활 보장을 제외한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 홍형옥(1986), 주영순(1996)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2) 주거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고등학생의 주거만족도를 주거특성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의 교육 및 후생시설에는 $p<.001$ 수준에서, 입지성 및 쾌적성에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만족도도 높았다. 주거만족도 중 거주기간

에 따라서는 거주기간이 6년 이하일수록 주거의 교육 및 후생시설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거주기간은 청소년의 주거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5~10년 미만인 청소년의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최현주(1995)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에서는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거의 교육 및 후생시설에, 독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거의 심미성 및 개성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주택인 경우가 전영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많은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말숙, 1990; 강송희, 1991; 김희재, 1991; 조은정, 1994; 최현주, 1995; 주영순, 1996). 방의 기거 상황에 따라서도 방을 혼자쓰는 고등학생이 주거의 내부구조 및 시설과 사생활 보장은 $p<.001$ 수준에서, 건강 및 안전성은 $p<.01$ 수준에서, 입지성 및 쾌적성과 심미성 및

<표 6> 주거특성 변인에 따른 주거만족도

M(SD)

구분		내부구조 및 시설	입지성 및 쾌적성	교육 및 후생시설	사회성	사생활 보장	심미성 및 개성	건강 및 안전성
거주 지역	농촌(n=204)	2.99(.70)	2.97(.53)	2.42(.67)	2.79(.65)	3.21(.80)	2.86(.74)	3.20(.63)
	도시(n=650)	3.05(.72)	3.11(.59)	2.78(.69)	2.87(.67)	3.22(.73)	2.82(.75)	3.29(.68)
	t	1.14	3.05**	6.55***	1.47	.23	.75	1.62
거주 기간	6년 이하(n=413)	3.08(.75)	3.06(.61)	2.77(.74) ^a	2.83(.71)	3.20(.75)	2.86(.76)	3.27(.69)
	7년~12년(n=279)	3.06(.70)	3.09(.54)	2.69(.66) ^{ab}	2.86(.65)	3.23(.73)	2.81(.75)	3.30(.66)
	13년 이상(n=323)	3.00(.67)	3.08(.57)	2.60(.69) ^b	2.85(.63)	3.27(.69)	2.82(.73)	3.24(.65)
	F	1.23	.08	5.19**	.20	.87	.54	.69
주택 유형	독립주택(n=412)	3.06(.71)	3.04(.57)	2.56(.68)	2.84(.62)	3.27(.71)	2.94(.74)	3.23(.66)
	집합주택(n=603)	3.04(.71)	3.10(.59)	2.78(.71)	2.85(.70)	3.20(.74)	2.76(.75)	3.29(.68)
	t	.34	1.62	5.02***	.29	1.53	3.70***	1.34
소유 형태	자가주택(n=806)	3.11(.70)	3.10(.58)	2.70(.72)	2.88(.66)	3.28(.72)	2.89(.75)	3.32(.66)
	임대주택(n=209)	2.82(.73)	2.97(.56)	2.68(.66)	2.72(.67)	3.04(.73)	2.63(.73)	3.05(.67)
	t	5.28***	3.08**	.23	3.11**	4.22***	4.52***	5.32***
방의 기거 상황	혼자쓴다(n=425)	3.13(.72)	3.10(.60)	2.72(.72)	2.86(.69)	3.30(.73)	2.87(.76)	3.31(.69)
	둘 이상 함께 쓴다(n=465)	2.85(.64)	3.02(.52)	2.63(.66)	2.80(.62)	3.05(.70)	2.76(.72)	3.17(.60)
	t	5.70***	2.03*	1.78	1.43	4.90***	2.09*	2.92**

* $p<.05$ ** $p<.01$ *** $p<.001$

* 문자 a, b, c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결과, 평균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개성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만족감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자가주택에서 자기방이 따로 있는 학생이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는 결과이다. 즉, 주거가 안정된 만큼 주거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6.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의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과시·유행추구형 생활양식은 주거의 교육 및 후생 시설과 건강 및 안전성과 $p<.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가족중심형 생활양식은 주거의 교육 및 후생시설과 $p<.05$ 수준에서, 주거의 내부구조 및 시설과는 $p<.01$ 수준에서, 그밖의 주거만족도 영역에서는 $p<.001$ 수준으로 아주 유의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가족중심형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일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양식이 자기개발중심형은 주거의 사회성과는 $p<.01$ 수준에서, 주거의 입지성 및 폐적성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편의추구형 생활양식은 주거의 건강 및 안정성과 $p<.05$ 수준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생활양식이 PC와 함께하는 형은 주거의 심미성 및 개성과 $p<.05$ 수준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편의를 추구하는 고등학생일수록 주거의 건강 및 안정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PC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일수록 주거의 심미성 및 개성에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리형 생활양식을 갖은 학생들은 주거의 사회성과 $p<.05$ 수준에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생활양식이 운동·취미중심형인 학생들은 주거의 입지성 및 폐적성과 $p<.001$ 수준에서, 주거의 교육 및 후생시설, 그리고 주거의 건강 및 안전성과 $p<.01$ 수준에서, 주거의 사생활 보장, 주거의 심미성 및 개성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을 보였다.

고등학생의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는 유의적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가족중심형 생활양식을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주거만족도와 같은 주거환경변인은 물리적 환경보다는 가족중심형과 같은 인적가정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편의추구형과 PC와 함께 하는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주거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주생활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법에 의해 2002년 1월 14일부터 1월 25일에 걸쳐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지역의 고등학생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불성실한 질문지 90부를 제외한 1015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7>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구 분		주거만족도						
		내부구조 및 시설	입지성 및 폐적성	교육 및 후생시설	사회성	사생활 보장	심미성 및 개성	건강 및 안전성
생활 양식	과시·유행 추구	.02	.04	.07**	.03	.04	.05	.08**
	가족중심	.09**	.11***	.06*	.11***	.18***	.15***	.11***
	자기개발 중심	.02	.07	.04	.09**	-.01	.05	.05
	편의 추구	-.05	-.06	-.01	.02	-.05	-.04	-.06
	PC와 함께	-.01	.00	.01	-.01	-.02	-.07	.04
	실리	.02	.03	.05	.06	-.01	.03	.03
	운동·취미 중심	.05	.10***	.09**	.05	.07*	.07*	.09**

* $p<.05$ ** $p<.01$ *** $p<.001$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생활양식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족수, 가족형태 변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성별, 아버지의 직업과 월수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특성에 따라서는 거주기간을 제외한 많은 변인에서 약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을 뿐 큰 차이는 없었다. 주거만족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가족수와 가족형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월수입에 있어서는 주거만족도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그 중 주택의 많은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가족중심형 생활양식은 주거만족도 각 영역 모두 유의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편의 추구형과 PC와 함께 하는 생활양식은 주거만족도의 여러 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고등학생의 생활양식은 주거특성보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관계되는 항목이었다. 주거만족도 역시 가정의 월수입, 주택소유형태, 방의 기거상황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이 주거의 만족도를 높이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주거특성보다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거 환경변인은 물리적 환경보다는 가족중심형과 같은 인적 가정환경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서 가족중심형의 생활환경이 주거만족도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변화, 그리고 다양한 생활양식이 공존하며, 고등학생의 주거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PC와 함께 하는 생활양식이 만연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주거만족도를 높게 의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에 관련된 다각적인 연구가 제시되어야 하겠다.

■투고일 : 2003년 7월 31일

참 고 문 헌

- 강송희 (1991). 중고등학생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기 (1993). 현대마케팅원론. 서울:박영사.
- 김미희, 문희정(1998).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7).
- 김순경 (1985). 청소년 주거의식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향, 양남희 (1993). 도시주부의 Life Style에 따른 승용차 정보탐색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3-29.
- 김은경 (1995). 신세대의 구매형태분석을 통한 신규 브랜드 설정방향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재 (1991). 주거환경변인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창원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1990). 청소년 집의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박은순 (1998). 신세대 라이프스타일이 신세대의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7(2), 49-61.
- 이은희 (1986). 라이프 스타일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택 (1994). 주거환경 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차우 (1983). 우리나라 도시주거 가정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특히 서울시내 거주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빈, 서병숙, 이효지, 장유경 (1990). 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양식. 대한가정학회지, 28(3).
- 유성희 (1983). 청소년의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 연

- 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복자, 김혜정(1991). 청소년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책상가구의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 윤정애 (1993). 청소년의 주거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근원 (1993). 영상세대의 출현과 인식론의 혁명. *시사저널*.
- 조경은 (1984). 주거내 프라이버시 요구도와 총족도 와의 상위가 청소년의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은, 윤복자 (2000). 신세대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1(1), 79-87.
- 조은정 (1994).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현경(1994). 주요구의 다양화에 따른 실내환경 선호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주영순 (1996). 청소년의 주거가치 유형과 주거만족도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애 (1986). 도시주부의 주거에 관한 가치관 연구 -서울시내 아파트주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성란 (1985). 가족 및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주 (1995). 청소년의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목화(1991). 현대 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1). 85~97.
- 한말숙 (1990). 주거환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주거만족도와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숙, 조성희(1997). 집합주택 계획을 위한 주생활양식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12).
- 홍형욱 (1986). 한국인의 주거조성 및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indel, M. (1982). Privacy Requirement and its effects on Housing Design. *Housing Science*.
- Brink, S. S. (1975). A preliminary study towards developing: a model of consumer home purchase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Burr, R., Hill, R., Nye, F. I. & Reise, I. L. (1979).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New York: The Free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Carol, B. M. (1980). Housing. Prentice-Hall.
- Duncan, H. D. (1969). Symbols and Soci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N. Y.
- Fried, M. & Gleicher, P. (1961). Some source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urban slum.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
- Gallogy, F. D. (1974). Housing Decisions in Selecting a Residence in a planned Townhouse Develop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4).
- 比浦化掘る. 上林博雄 (1967). 住生活と住宅の型發展に關する研究 大阪市立大學 家政學部紀要, 第1卷.